

'25. 8. 22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테

- **韓, 사제폭탄으로 시민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공중협박죄 첫 유죄 판결**
 - 8.17 언론은 지난 5월 영등포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등으로 사제폭탄을 만든 뒤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한 혐의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첫 벌금형(600만원)이 선고되었다고 보도
 - ※ 同사건에 “사회 불만이나 이상 동기 등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유형도 있어, 양형을 강화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” 등의 처벌 강화 의견 부언
- **韓 경찰, 지속되는 허위폭발물 협박에 강경 대응 입장 발표**
 - 8.18 「유재성」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발생한 허위 폭과 협박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권력 낭비가 누적되는 만큼,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
 - ※ 同人은 최근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과 관련해 일본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테러 협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부언
- **韓,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**
 - 8.18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% 이상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
 - ※ 기존에는 테러 관련자 개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만 제한했으나, 개정안 부터는 직간접적으로 소유·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

유럽

- **스페인·모로코, 온라인에서 테러 선동 혐의로 20대 체포**
 - 8.18 언론은 스페인 경찰이 테러 선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20대 2명을 체포하였으며, 이들이 ISIS와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1년 전부터 집중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2명 중 1명은 실제 테러를 위해 조직원 모집 및 세뇌 역할까지 했다고 부언

미 주

- **美, 엔트로픽 인공지능(AI) 챗봇 해로운 패턴 감지 시 대화종료 기능 추가**
 - 8.17 엔트로픽사는 성적 콘텐츠 및 테러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요구 등의 패턴을 감지하면 대화종료를 하는 기능을 포함했으며, 다만 대화종료로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발표
 - ※ 엔트로픽은 지난 4월 '모델복지'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, 앞으로 AI가 의식을 가질 경우를 대비해 윤리적 고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부언
- **美, 테러자금 지원을 이유로 유학생비자 최대 300명 취소**
 - 8.18 언론은 美 국무부가 올해 폭행·강도·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6천여 건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, 그 중 약 200~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위해 자금 모집에 가담하는 등 '테러 지원'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
 - ※ 미국 이민 및 국적법(INA) 212조 3B 조항은 '테러 활동' 범위를 미국법상 불법행위이면서 생명·재산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로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

중 동

- **시리아, 자살폭탄 테러 연달아 발생**
 - 8.18 언론은 8월 16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차량 폭탄테러와 17일 알레포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연달아 발생했다며, 최근 시리아 내에서 ISIS 연계로 추정되는 잇단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
 - ※ 6월 22일 다마스쿠스 內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25명 사망하였고, 7월 에는 알레포 국제공항 부근 군사시설에서 자폭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**나이지리아, 안사르 테러조직 고위 지도자 체포**
 - 8.17 언론은 미국 등으로부터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안사르 테러조직 지도자 2명을 체포했으며, 이들은 지난 '22년 아부자에서 폭발물을 사용해 수백명의 수감자를 석방하는데 연관이 있다고 보도
 - ※ 국가 안보 보좌관 「누후 리바두」는 이는 나이지리아가 15년간 진행한 극단 주의 조직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발표

역사속 테러사건

英, 런던 의사당 앞 차량돌진 테러

- '18.8.14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하여 3명이 부상
 - 테러범(29세, 수단출신)은 국회의사당 주변을 통행하던 보행자에게 차량 돌진 후 국회의사당 철제 보호벽을 들이받고 정차한 뒤 현장에서 체포
- 경찰당국은 추가 폭발물·무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, 同 사건의 고의성과 범행방법(차량돌진)·장소의 상징성(의사당 부근) 등을 고려, 테러사건으로 규정하고 살인미수로 기소 처리

< 英, 주요 차량돌진 테러 사건 >

- * '17.3 웨스트민스터 브리지 부근에서 SUV차량으로 보행자에게 돌진하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른 테러가 발생(사망 5명, 부상 50여명)
- * '17.6 런던 브리지 부근에서 밴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 후 인근 마켓에서 흉기를 사용한 테러가 발생(사망 8명, 부상자 48명 / ISIS 관련 테러로 분류됨)

테러 상식

< 차량 돌진(Vehicle Attack) 테러 >

- (정의) 차량을 시설물이나 사람들을 향해 주행하여 살상하는 테러 유형
 - ※ 차량 자체를 무기로 이용한다는 점에서, 차량을 폭발시키는 '차량 폭탄테러'(Car Bomb)와 구별
- (특징) △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△도구(차량)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△목표물에 접근이 용이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, 사전 준비기간이나 차량 이외의 유형적 준비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최근 관련 테러가 급증 전기차의 보급으로 고중량, 급가속의 강점을 이용한 차량 돌진 테러에 대한 우려 증가
- (사례) △'16.7.14 佛 니스 차량테러, △'16.12.20 獨 베를린 크리스마스마켓 차량테러, △'17.3.22 英 런던 브릿지 차량테러, △'17.4.7 스웨덴 스톡홀름 차량테러, △'17.8.17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, △'17.11.1 美 뉴욕 맨하튼 차량테러
- (대책) 블라드·로드블럭 등 장애물 설치, 트럭에 자동제동장치(AEBS) 설치 의무화, 특정 지역 접근을 막는 Geo-fencing 도입, 차량 접근속도를 줄이는 진입로 설계 등